

#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 원시주의 미술의 조형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김민자·하지수

目 次

I. 서론	2. 유희성
II. 원시주의 개념에 관한 고찰	3. 자연성
1. 원시주의 발생 배경	4. 토속성
2. 원시주의 개념과 특성	IV. 결 론
III. 복식과 미술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비교 고찰	ABSTRACT
1. 감성성	

## I. 서론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능적, 기계주의적, 획일적인 서양복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왔으나 최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태평양 연안 등지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속풍(ethnic look)이 트로피칼 룩(tropical look), 에콜로지(ecology)풍과 함께 새로운 패션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원시성<sup>1)</sup>에 대한 향수가 복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대 패션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시주의 양식의 내적 의미와 외적 형태를 이해하고 둘째, 문화적 공유의 맥락에서 원시주의를 표현하는 미술과 복식의 조형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시주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행하였으며, 이론적 연구에서 밝혀진 통시적, 공시적 원시주의 양식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서 그 표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술과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1차 자료

인 화집과 1960년대 이후의 Vogue지와 1980년 이후의 Elle지, collezioni지, Bazaar지 등 패션 잡지를 통해 살폈으며 16세기 이후 복식에 표현되는 원시주의에 대해서는 2차 자료인 문헌을 통해 역사적 고찰을 병행하였다. 이때 복식의 형태를 보는 개념으로 DeLong의 다섯 가지 기본번주를 적용하였다.

## II. 원시주의 개념에 관한 고찰

### 1. 원시주의 발생 배경

원시주의는 서양 사상의 맥락에서 보면 장구하고 다양한 역사성을 띤다.<sup>2)</sup>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지리상의 탐험과 발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서구인들이 알지 못했던 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대륙의 문물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점차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소극적으로나마 원시 부족문화가 저급하지만 한 것이 아닌 나뭇대로의 창조성과 생명력에 의해 이루어졌음

1) 김민자, "Traditional Identity and Its Aesthetic Value in Korean Fashion Design", International Symposium on cultural Aspect of Home Economics in Asian Countries, 1990, p. 194

2) 신용옥, "플로깅의 제1차 타히티 시대 작품을 통한 원시주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0, p. 9

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산업혁명 이후로 생활양식의 변화와 전반적인 문화변천은 원시예술에 대한 서구인들의 취향과 심미안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6세기 사상가 Montaigne가 1592년 살육제를 풍자적으로 옹호한 글을 시발점으로 해서 사상과 문학의 관심은 “고귀한 야만(Noble Savage)”<sup>3)</sup> 개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더럽혀지지 않은 인간, 지혜로우나 순진무구한 인간, 그 순수한 덕과 단순한 사고로 특징지어지는 “고귀한 야만”은 편협하고 나약한 문명화된 유럽의 인위성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전통은 특히 인간의 행복과 선행같은 유토피아적 견해가 문명이 지니는 제약성보다 우선한다고 믿었던 계몽주의 시대에 구체화되었으며, 역사적 맥락속에서 서양문명을 비판하기 위한 장치로 쓰인 “고귀한 야만”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시주의는 18세기 정치, 철학, 종교분야의 사상의 중심이 되었을 뿐아니라 예술과 패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전반에 걸쳐 원시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은 사회가 산업화, 기계화됨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병폐도 또한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 자연주의적, 생태학적 관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으며 인간성 회복을 위해 인간의 본성을 표출시키며 영혼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원시미술을 동경하게 되었다.

다시말해서 원시주의는 19세기말부터 가속화되어 20세기에 그 전성기에 이른 기계주의, 모더니즘에 반대되는 양식으로 기계문명에 밀려난 인간성의 회복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 2. 원시주의의 개념과 특성

원시적에 해당하는 primitive(英)는 후기 신고전주의(post-Augustan) 시기의 라틴어 primitivus에서 유래되었으며, 제일, 으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primus보다 그의미를 강화시킨 것이다.<sup>4)</sup>

사전적 의미로 원시적이란 첫째, 초기와 관련되며 둘째, 무의식적 필요욕구에 기원을 둔 정신활동, 행동과 관련되며 객관적, 논리적 유추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며 셋째, 고대적 양식의 특징을 갖는 단순한, 투박한, 거친의 뜻이다.<sup>5)</sup>

원시주의에 관한 최초의 정의는 프랑스의 라루스 사전에서 “원시적인 것의 모방”<sup>6)</sup>으로 기술되었다. 이후 웹스터 사전에는 “자연에로의 회귀를 함축하는 원시적 삶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것”으로 수록되었으며, 이것은 에콜로지를 의미한다. 또 “물질적으로 덜 발달되고 문명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의 덕목을 중시하는 경향”<sup>7)</sup>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Robert Goldwater는 역사적으로나 심리학적이나 미학적으로 과거로 돌아갈수록 사물은 더 단순해지며, 따라서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 완전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sup>8)</sup>고 하였다. William Rubin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부족 미술품에서 모티프를 얻어 창조하는 경향을 원시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20세기초 원시주의가 예술에 대해 쓰여졌을 때, 이말은 자연에로의 복귀, 즉 원시적인 삶속에 관념적으로 내재한 이상적인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원시주의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정의를 중심으로 현대 원시주의 양식의 개념 특성을 【표 1】로 총괄 정리하였다.

3) Noble Savage 개념자체는 고대 그리스의 Homer나 Pliny가 아케익(Archaic) 사람들을 이상화한데서부터 유래되었고, 이어 로마의 Horace나 Virgil의 작품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그후 1672년 Driden의 ‘그라나다 정복’이란 연극에서부터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8, 1985, p. 748

4)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12(London : The M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p.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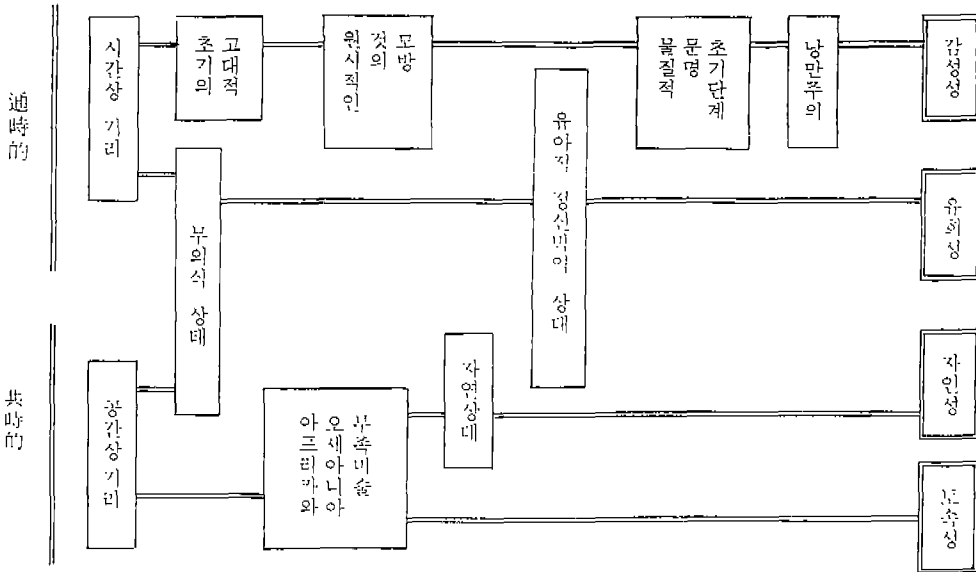
5)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London : G & C Merriam Co., 1971), p. 486

6) Nouveau Larousse Illustrée, vol. 7 (Paris : Librairie Larousse, 1897-1904) p. 32를 인용, op. cit. p. 7에서 재인용

7) Encyclopaedia of world Art, vol. 11(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63), p. 706

8) Goldwater, R., Primitivism in Modern Ar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p. 251

【표 1】 현대 원시주의 양식의 개념



결론지어 원시주의란 【표 1】에서와 같이, 통시적인 측면에서 현재와 시간상으로 거리가 있는 인간 문명의 초기시대를 이르며, 물질문명이 진전되지 않아 생성된 상태 그대로의 순박하고 투박한 상태를 이룬다. 고대적이라 아케익(archaic) 시기로서 고전적(classic)과는 구별되는 상태로 이성, 비율, 균형을 중시하는 규칙이 성립된 상태와는 달리 다듬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월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높게 평가하므로 감성주의, 낭만주의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시주의의 특성을 '감성성(感性性)'이라 할 수 있다. 감성이란 느끼는 성질, 감각, 지각에 의하여 불러일으켜져 그것에 지배되는 심적 체험의 전체 또는 인상을 받아들이는 힘을 말한다.<sup>9)</sup>

유희성이란 유아기와 같은 순진무구한 시기의 특성과 같다. 내면의 상태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무의식의 상태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무의식 상태는 이성중심의

서양세계에 반기를 든 반이성적인(irrational) 운동인 초현실주의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반이성적인 흐름에서 어린이의 장난과 같은 유희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유희성은 이성적인 것들을 서로 융합시킨 표현 기법으로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원시주의의 특성을 줄곧 붙여 장난하는 듯한 성질인 '유희성(遊戯性)'<sup>10)</sup>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물질문명의 지나친 발달로 인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자연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곳을 원시적 이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을 중시하는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생태학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자연성(自然性)'-자연 그대로의 성질<sup>11)</sup>을 중요시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특히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적인 요소를 현대문명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것인

9)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서울 : 삼성출판사, 1991), p. 73

10) Ibid., p. 2606

11) Ibid., p. 2794

이 크게 일고 있으며 이것이 20세기 원시주의의 중요한 특성이다. 이러한 부족예술은 잘 다음어진 절제의 미가 아닌 투박하고 소박한 토속적 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지방 특유의 습관, 풍속의 특성을 표현하는, 현대 원시주의 특성을 ‘토속성(土俗性)’이라 할 수 있다.

### Ⅲ. 복식과 미술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비교 고찰

위에서 정리한 원시주의의 개념인 감성성, 유희성, 자연성, 토속성의 4가지 내용이 복식과 미술에서 어떠한 시각적 형식을 통해서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감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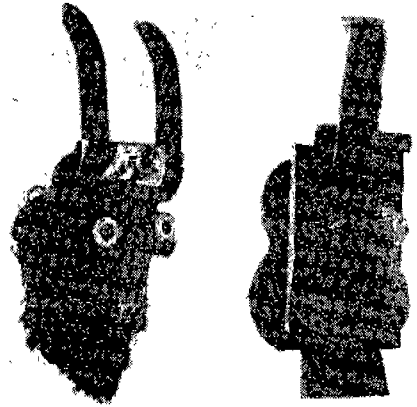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성성은 야만적이며 무질서한 고대적 양식과 낭만주의 흐름으로 대별된다. 고대 크레타(Cretan)인과 미노스(Minos)문명의 의복은 강한 원시적 특성을 보여주며 상당한 양의 노출과 더불어 과장, 현란한 장식, 왜곡 등 아프리카 스타일과도 다소 흡사하며<sup>12)</sup> 인체가 복식에 대해 종속적인 형<sup>13)</sup>, 즉 복식우선형<sup>14)</sup>이다.

감성성은 중세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시대의 복식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스타일로서 패션에 재현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기존의 고전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에 반하는 원시적이고 폭풍우와 같은 예술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소박하고 가장 첨단적인 그룹운동을 일으킨 것이 Matisse가 중심이었던 포비즘(Fauvism)이다.<sup>15)</sup> 포비즘의 중요한 특성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주의적이라는 사실과 장식적인 회화라는 점이다. 그들은 물체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원색을 무절제한

게 사용하였다.<sup>16)</sup> 이는 최근 복식에서 신낭만주의(Neo-Romanticism)의 흐름과 비교될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예술품은 표현력과 창의력이라는 독특한 자질에 의해 다른 것과 구별된다.<sup>17)</sup> 예로 아이보리 코스트의 그레보 가면을 인용한 Picasso의 ‘기타(guitar)’【그림 1】와 복식에서 대표적인 원시주의 디자이너라 할 수 있는 Yves Saint Laurent의 작품【그림 2】을 들 수 있다. 그레보 가면의 특별한 속성은 가면의 얼굴이 다른 여러 가면에서와 같은 3차원의 형태가 아닌 평평한 판대기라는 점과 튀어나온 원통형의 눈이다. Braque의 회화에서 얻은 모티프를 네이비(navy) 새틴 이브닝 드레스의 전반부에 대담하게 장식하고 있는 패션 디자인에서도 독특한 표현력을 느낄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ABC(Apparel-Body Construction) 전체의 인식보다는 부분의 인식이 우선한다.



【그림 1】 Mask Grebo(左) Picasso, Guitar(右)  
Rubin, W. : Primitivism in 20th century Art. p. 20

12) Hollander, A.,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 Avon Books, 1980), p. 16

13) 복식이 독립적인 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Roach, M and Eicher, J., The Visible Self : Perspectives on Dress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1973), pp. 96-99

14) 시각적인 우선성(Body-Clothing Priority)으로 설명하는 것. Delong, M., The Way We Look(Iowa : State University Press, 1987), pp. 49-50

15) 양희석, 『예술철학(하)』 (서울 : 자유문고, 1988), p. 208

16) Ibid., p. 209

17) Rubin, W., 김채현(역), “프리티비즘은 왜 주목해야 하는가?”, 『개간미술』, 1985. p. 44



【그림 2】 Yves Saint Laurent(1988)의 작품  
Vogue(1984. 4) p. 293



【그림 3】 영양의 무리, 암면채화  
아프리카 남부  
Adam. L. : 원시미술 p. 57

Ann Ferebee는 '표현주의'에서는 생태학적 형태, 곡선을 사용해 나무, 돌과 같은 천연재료로 표현하며 손으로 만든다고 했으며 색채는 황갈색, 갈색, 녹색 등의 자연색을 주로 사용한다<sup>18)</sup>했다. 이는 기능주의와 반대되는 특징들이며 원시미술품의 특징이기도 하다. Guy Paulin 【그림 4】의 작품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전반적 색조를 이루는 밝은 갈색은 원시미술의 조형적 특성인 생기넘치는 자연색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단순화된 산양의 모티프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발견된 영양의 부리를 그린 벽화 【그림 3】와 매우 유사하다. 원근법과 투시도법에 의한 세련된 표현 기법은 찾아볼 수 없으나 단순하고 소박한 선의 사용으로 솔직담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원시미술의 조형성인 명쾌한 구성과 생태학적 형태가 단순한 의복선으로 표현되었다.

## 2. 유희성

Quintin Bell은 패션은 은닉한 도덕성과 관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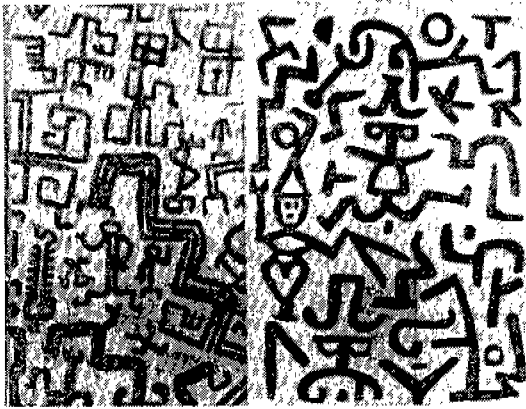


【그림 4】 Guy Paulin(1989)의 작품  
Bazaar(1989) p.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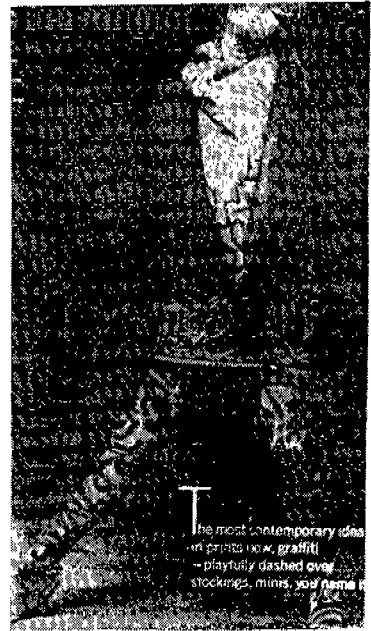
있으며 숨겨진 무의식 세계와 사회 집합적 가치구조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9)</sup> 내면의 상태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려는 예로는 초현실주의와 팝아트 【그림 6】의 영향을 받은 의복을 들 수 있다. 팝아트는 대중소비문화에 시각적 모방을 가져왔고 유아스러운 패션을 나

18) Ann Ferebee, A History of Design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Present, 1980 유근준(역), 『디자인 역사』 (서울 : 청석, 1980), pp. 10-13

19) Wilson, E.,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 Virago Press, 1985), p. 43



【그림 5】 상형문자를 연상시키는 원시회화(左)  
 Adam, L. : 원시미술 p. 53  
 Klee, P., Poster for Comedians( 1938) (右)  
 Rubin, w. : Primitivism in 20th century Art



【그림 6】 Graffiti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

타나게했다.<sup>20)</sup> 팝아트가 심미적 균형미를 중시하는 종래의 순수예술에 대한 도전이며 반항이었던 것처럼 팝패션 또한 우아함과 세련미를 중시하는 복식에서의 혁명인 것이다.<sup>21)</sup>

1980년대에는 매우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나 신낭만주의(New Romantics), 로커빌리(rockabillys)<sup>22)</sup>, 아프리카 문양, 새로운 환각제의 세계(New Psychedelia), 정치적 모방(Regency fops), 밥테일즈(bobtails), 1960년대의 모방, 슈트 슈트(zoot suit)<sup>23)</sup> 등 패션의 변화는 속도를 더해갔다. 최근에는 원시예술의 영향으로 치졸하고 서투른 형식을 빌어 색다른 미를 추구하는 경향이다.

원시미술에서는 그로테스크(grotesque)한 표현과 함께 강조, 왜곡을 통해 예술적 표현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과장한다. 경우에 따라서 인체부위가 해체되거나 각 부위가 뒤섞여 등장하기

도 하며<sup>24)</sup>, 공간감의 표현에 있어서도 왜곡원근법<sup>25)</sup>이나 중첩과 반복 표현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 표현방식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인하여 원시주의 예술품은 마치 어린아 이들의 장난 【그림 5】, 혹은 전혀 기존의 미를 의식하지 못하는, 객관적, 논리적 유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작품과 같은 인상을 준다.

예로부터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에 토우가 있는데 이것은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을 본 뜬 제품이다. 가슴에 튀어나온 젖통이 있는 것 【그림 7】 이나 배를 붕긋하게 하여 임신을 나타내는 여성의 토우가 많았다.<sup>26)</sup> 이를 통해 다산과 풍요

20) Evans, C. and Thornton, M., Women & Fashion : A New Look (London : Quartet Books, 1989), p. 2

21) 김민자, "1960년 팝아트의 사조와 패션", 『한국의류학회지』, 11(2), 1987, pp. 82-83

22) 리듬이 열광적인 재즈음악과 관련된 패션

23) 도시의 흑인 젊은이들이 1940년대 제시한 스타일. 패드로 어깨를 과장한 자켓과 팽이형 바지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풍성한 드레이프가 있는 스타일이다. 슈트란 단어는 1930년대 재즈문화에서 나온 단어로 이들의 스타일은 가난한 미국과 도시생활에서의 소외에 대항하는 소수인종의 사회적 반란을 의미한다. Wilson, E., op. cit., p. 198

24) 서성록, "현대미술 속의 원시적 성격과 그 의미공간", 『현대미술』, 1990, p. 44

25) 하나의 시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대상에 대하여 여러 시점에서 본 형상을 동시적으로 간파하여 그려내는 방식

26) 김익달, 『세계문화사 : 선사시대와 문명의 발생』 (서울 : 학원사, 1964), p. 343



【그림 7】 선조 조각상, 밤바라족

Willett, F. : L' Art africain p. 14



【그림 8】 Calugi e Giannelli(1989)의 작품

Bazaar(France, 1989) p. 61

를 기원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서양인들의 기존의 미관에 대한 도전이며, 새로운 미관의 제시를 의미한다. 【그림 8】에서 이와 유사한 요소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인체를 3차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둥근 형태이다.

### 3. 자연성

원시주의의 자연성은 북식에서 에콜로지풍, 전원적 낭만주의, 피전트(peasant) 룩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꽃과 식물을 입는다'고 표현될 정도로 여성복의 거의 모든 부분을 꽃과 자연물의 아플리케로 장식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자연물 장식은 계속해서 유행했으며 편물에서 전원적이고 농가적인 스타일을 찾으려했다. Laura Ashley가 천연직물, 특히 면의 사용과 전원적 장식을 통해 이러한 자연성을 적절하게 표현했으므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sup>27)</sup> 최근 두드러진 경향은 인간과 자연이 융화된 표현과 토속적인 표현이다.

원시인들은 동물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예술을 통하여 그 동물들의 힘을 얻고자 했기때문에 예술품에 동물털, 식물뿌리, 조상의 머리털 등의 자연물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자연물들의 직접적인 이식은 정령(精靈)의 실존에 대한 염원으로서 커다란 힘을 갖는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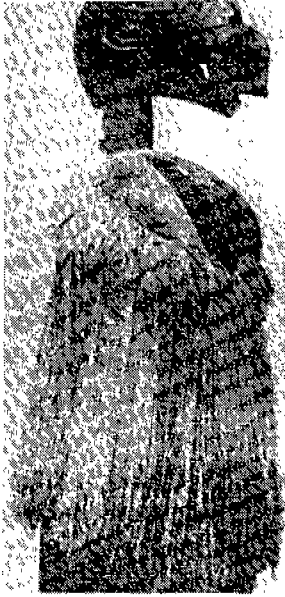
자연성은 원시인들의 직물의 특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프리카인들은 모사, 견사, 면사, 식물의 줄기와 잎 등의 천연 소재를 사용해서 간단한 직기를 사용하거나 맨손으로 단순히 엮는 방법을 사용해 그들 특유의 직물을 생산한다.<sup>29)</sup> 이와 같은 직물을 몸에 단순히 두르거나 걸쳐 입는 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의 자연과의 합일을 의미한다.

【그림 9】는 북부 아프리카의 바가족 사이에서 벼추수가 끝난 후 의식을 치를때 머리에 쓰는 거대한 탈로 마른 풀로 장식하고 있다. 【그림 10】은

27) Baines, B.B., Fashion Revivals from the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New York : Drama Book Publishers, 1981), pp. 65-99

28) 문혜신, "현대섬유미술에 나타난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91, pp.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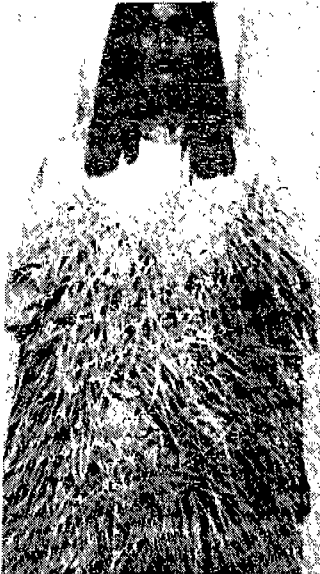
29) 유미애, "서아프리카 가나직물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91, p. 6



【그림 9】 남바 탈, 북부 바가족  
Willett, F : L' Art africain p. 24



【그림 12】 Yves Saint Laurent(1990)의 작품  
Elle (1990, 10) p. 285



【그림 10】 Agatha Ruiz de la Prada(1990)의 작품  
Collezioni(1990, S/ S) p. 163



【그림 11】 주물 숭배상  
Masterpieces of Primitive art p. 116



에콜로지풍을 강하게 표현하는 패션 디자인으로 단순하고 험령한 개방적 실루엣의 원피스의 표면에 무질서하고 투박하게 자연물로 장식했다.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머리와 수공예적인 느낌이 자연성을 더하고 있으며 비한정적 형태와 열린 형태로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 원시미술의 무기교적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며 인위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림 11】은 주물 숭배상으로 삶과 생명력의 상징으로 동물가족 장식을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을 Yves Saint Laurent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12】

#### 4. 토속성

한 문화권 내에서 하위문화(subordinate culture) 복식의 특성과 요소가 모문화(mother culture)에 전파되어 모문화 복식을 변화시킨 예는 히피, 펑크등에서 볼 수 있으며<sup>30)</sup> 복식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화의 전파는 서양(유럽, 미국 등)과 비서양(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간의 복식특성과 요소의 전파에서 볼 수 있다.<sup>31)</sup> 서양에서 지역적으로 은폐되고 격리된 곳에 대한 동경은 동양 복식의 도입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서 동양은 물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동지의 의복과 예술이 서양복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서양복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만나라의 다양한 의복양식에 대한 상대적인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sup>32)</sup> 1909년 Diaghileve가 연출한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공연, 1911년 야수파의 전시회<sup>33)</sup>, 1922년 이집트의 투탄카문(Tutan Kamun)의 발굴, 1931년 파리의 식민지 박람회 등은 패션에 많은 상상력과 감정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그 후 태평양이나 아시아, 북아프리카등의 이국적인 민

속조의 색채가 계속 나타났다.<sup>34)</sup> 1960년대에 들어 “Black is Beautiful”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1967년 Yves Saint Laurent에 의해 발표된 아프리카 드레스를 기점으로 토속적 복식이 오프 꾸뛰르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9년에는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지배적인 주제는 유니섹스, 아르데코, 아프리카 스타일, 수공예적 스타일(hand-made), 유희적 복식(fun clothing)이었다.<sup>35)</sup> 1980년대 이후로는 토속적이며 향토적인 이미지의 대상은 동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에스키모, 남미 또는 유럽지방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아프리카 부족민의 복식 요소는 현대미술에서의 원시미술의 영향과 더불어 현대복식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는 원시예술의 장식적 도화, 직물과 바구니 세공에서 흔히 볼 수 있다.<sup>36)</sup> 기하학적 무늬의 추상적 표현과 강렬한 원색은 아프리카 예



【그림 13】 라피아줄기로 만든 옷감, 바쿠바 족  
Willett, F. : L' Art africain p. 19

30) 김민자, “2차 세계대전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스타일-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s와 Punk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1(2), 1987, 8월호, pp. 69-89

31) 김윤희, 김민자,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9(1), 1991. p. 2

32) Wilson, E., op. cit., p. 56

33) Ribeiro, A., Dress and Morality (London : B. T. Batsford, 1986), p.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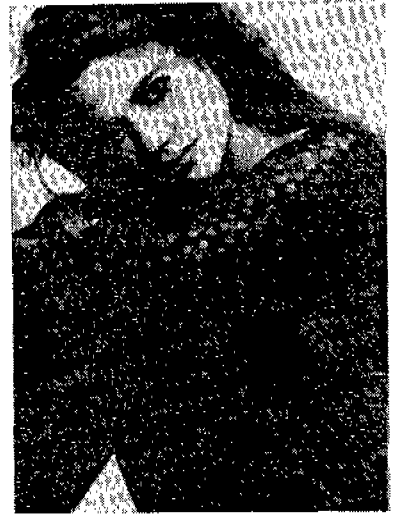
34) 조규화, 박혜원,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4), 1991, p. 384

35) Mulvagh, J.,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ew York : Viking, 1988), pp. 311-313

36) Adam, L., Primitive Art, 김인환(역), 『원시미술』 (서울 : 동문선), p. 100



【그림 14】 Manuel Piña(1989)의 작품  
Bazaar (1989) p. 466



【그림 16】 Issey Miyake(1989)의 작품  
Bazaar(1989. 9)

술의 독특한 특성인데 이러한 직물 【그림 13】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니트 스커트 【그림 14】를 볼 수 있다. 빨강과 노랑의 원색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의 단순한 문양을 반복해서 사용했으며 대담한 색상과 문양으로 인해 부분의 인식이 우선한다.

Issey Miyake는 바디페인팅을 응용해 나신에 그림을 그린 듯한 작품 【그림 16】을 발표했는데 이는 태평양 연안 부족민들의 신체장식의 일종인 문신 【그림 15】과 매우 흡사하다.

복식과 미술에서 원시주의 양식의 조형성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2】와 【표 3】과 같다.



【그림 15】 하반신에 문신을 한 남자  
Pacific Island Monthly (1978. 10)

【표 2】 원시주의 미술양식의 일반적 조형성

내용	감성성	유희성	자연성	토속성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개념에서의 탈피</li> <li>· 인간본능, 내적 욕구의 표현</li> <li>· 감정적 표현</li> <li>· 생명력, 독창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술적 의미 (다산과 풍요)</li> <li>· 인간미, 새로운 미관표현</li> <li>· 무의식 세계</li> <li>· 단순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니미즘</li> <li>· 토데미즘</li> <li>· 주술적 의미</li> <li>· 유토피아적 경향</li> <li>· 자연과 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미의 파괴</li> <li>· 민족 고유성의 보존</li> <li>· 서구 사회와의 격리</li> <li>· 이국적 취향</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질서한 형태 (archaic)</li> <li>· 왜곡된 형태</li> <li>· 명쾌한 구성</li> <li>· 생태학적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모리스한 형태</li> <li>· 그로테스크한 형태</li> <li>· 과장, 왜곡, 변형된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쾌한 볼륨의 단순한 형태</li> <li>· 장식적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로틱한 형태</li> <li>· 아만적 형태</li> <li>· 왜곡된 형태</li> <li>· 기하학적 형태</li> </ul>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식적 곡선</li> <li>· 유기적 곡선</li> <li>· 절충적 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껍고 애매한 선</li> <li>· 장난같은 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쾌한 선</li> <li>· 장식적 선</li> <li>· 유기적 곡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흐트러는 듯한 아라베스크선</li> <li>· 단순한 선</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색 부정</li> <li>· 생기넘치는 무절제한 원색</li> <li>· 적갈색, 황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적 색채</li> <li>· 순색의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색채</li> <li>· 생태학적 색</li> <li>· 날카로운 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렬한 원색</li> <li>· 토속적 색상</li> </ul>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무, 돌 등의 천연소재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질적 재료의 배합</li> <li>· 절충적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털, 식물뿌리, 가죽, 나무 껍질 등 자연물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속적 재료</li> </ul>
기법	순직담백한 기법			
	전통적 표현방식의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근법 결여</li> <li>· 중첩, 반복</li> <li>· 팔라주</li> <li>· 위치전환법</li> <li>· X선 도화</li> <li>· 패러디 기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근법 결여</li> <li>· 무기묘의 기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식적 표현</li> <li>· 양식화된 표현 (stylized)</li> </ul>

IV. 결 론

원시주의의 개념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성, 무의식의 상태와도 유사한 어린이의 장난 같은 유희성, 자연 그대로의 성질을 중시하는 자연성, 그리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지방 특유의 습관, 풍속의 특성을 표현하는 토속성의 4가지로 분류되었다.

미술과 복식의 공통되는 기본적인 조형상의 특성은 직관적, 무의식적 표현과 기존표현 방식의 거부로 나타났으며, 복식의 원시주의 양식의 조형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에서 감성성은 비율과 조화를 무시하는 고대적 양식으로부터 낭만주의 양식으로 연결되며 내적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한다. 이는 원시주의 미술의 인간본능의 표현, 생명력, 독창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무질서한 생태학적 형태, 원색의 사용등 원시 미술의 조형적 특성은 복식에서 열린 형태, 부분의 우선적 인식, 둥근 형태의 형태적 특성과 현란한 장식, 대담한 색채와 여성적인 소재로 표현되며, 대표적 디자이너는 Christian Dior, Christian Lacroix를 들 수 있다. 둘째, 유희성은 초현실주의 양식, 팝아트 양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성도착, 패러디 현상 등을 통해 표현된다. 유희성은 현대예술에서 자주 나타

【표 3】복식의 원시주의 양식의 조형적 특성

내용 형식	감성성	유희성	자연성	토속성
패션의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대적 양식</li> <li>· 낭만주의 양식</li> <li>· 에로티시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현실 주의</li> <li>· 팝아트 양식</li> <li>· 가장무도회</li> <li>· 성, 역할 혼돈</li> <li>· 유아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콜로지풍</li> <li>· 전원풍</li> <li>· 피전트 룩</li> <li>· 전원적 낭만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풍</li> <li>· 인디안풍</li> <li>· 콜로니얼(colonial) 풍</li> <li>· 아마존 스타일</li> </ul>
상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적감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술성</li> <li>· 권위, 전통거부</li> <li>· 무질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의 조화</li> <li>· 평화회귀</li> <li>· 목가적 분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시성의 회복</li> </ul>
실루엣 (복식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곡된 실루엣</li> <li>· 복식우선형</li> <li>· 유기적 곡선미</li> <li>· 열린 형태</li> <li>· 부분우선지각</li> <li>· 둥근 형태</li> <li>· 평면통합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곡, 과장</li> <li>· 열린 형태</li> <li>· 부분우선지각</li> <li>· 둥근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의 노출</li> <li>· 생태학적 형태</li> <li>· 열린 형태</li> <li>· 부분우선지각</li> <li>· 광면통합 형태</li> <li>· 비한정적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의 노출</li> <li>· 부분우선지각</li> </ul>
디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란한 장식</li> <li>· 레이스, 러플, 꽃, 리본, 깃털</li> <li>· 많은 닥트, 솔기</li> <li>· 다양한 무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li> <li>· 요란한 치장</li> <li>· 구멍내기</li> <li>· 체인줄 장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물 장식</li> <li>· 스모킹 장식</li> <li>· 비구조적 주름</li> <li>· 짚시모자</li> <li>· 밑줄장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석, 깃털, 꽃 장식</li> <li>· 이국적 문양</li> <li>· 구슬장식</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담한 색채</li> <li>· 부드럽고 여성적인 색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색</li> <li>· 밥색, 갈색, 회색, 녹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주의 색채</li> <li>· 자연색</li> <li>· 원색</li> </ul>
재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물</li> <li>· 새로운 소재</li> <li>· 이질적 재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물</li> <li>· 천연직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국적 소재</li> <li>· 천연소재</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뷔벱, 코르셋</li> <li>· 데콜라지 네크라인</li> <li>· 크리놀린</li> <li>· 벅스, 뉴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로디 기법</li> <li>· 패치워크</li> <li>· 낙서기법</li> <li>· 꼴라쥬 기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플리케</li> <li>· 수공예 기법</li> <li>· 늘어뜨린 머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누스</li> <li>· 아프로, 모히칸 헤어스타일</li> <li>· 바디페인팅</li> </ul>
디 자 이 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ristian Dior</li> <li>· Christian Lacroi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hiaparlei</li> <li>· Mary Quant</li> <li>· Vivienne Westwood</li> <li>· Jean Paul Gaulti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ul Poiret</li> <li>· Laura Ashley</li> <li>· Kenz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ul Poiret</li> <li>· Yves Saint Laurent</li> <li>· Karl Lagerfeld</li> </ul>

나는 우연성과 같이 억제되지 않은 무의식적 상태를 표현한다. 이는 원시주의 미술에서 인간미의 표현, 주술적 의미의 표현과 상응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권위에의 반란, 전통의 거부, 개인적 자유를 상징한다. 복식에서는 왜곡, 과장된 실루엣과 새로운 소재의 혼합, 낙서기법, 꼴라쥬 기법들을 통해 열린 형태, 부분의 우선적 인식, 둥근 형태로 표현된다. 대표적 디자이너로 Schiaparelli, Mary Quant, Vivienne Westwood, Jean Paul Gaultier가 있다. 셋째, 자연성을 표현하는 복식으

로는 에콜로지풍, 전원풍, 피전트룩 등이 있는데, 원시주의 미술의 애니미즘, 토테미즘, 자연과의 융합의 표현과 비교할 수 있다. 인체 자체의 미를 중시하기 보다는 자연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신체의 노출, 자연물 장식, 열린 형태, 비한정적 형태를 취하며 천연직물의 사용, 수공예적 기법이 그 특징이다.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Paul Poiret, Laura Ashley를 들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풍, 인디안풍, 남미풍 등 원시성을 회복하려는 토속성이 복식에서도 표현되었으며, 원시주의 미술에서

의 단순한 유기적 곡선, 강렬한 토속적 색상과 재질, 장식적 표현은 복식에서 부분의 우선적 인식과 신체의 노출, 이국적 문양과 재질, 원색의 사용, 장식성등으로 유사하게 표현된다. Karl Lagerfeld, Yves Saint Laurent이 대표적 디자이너이다.

원시주의 복식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성과 순수한 감수성의 회복을 위해 감성성, 유희성, 자연성, 토속성의 내용을 열린 형태, 부분의 우선적 인식, 평면통합 형태, 둥근 형태, 비한정적 형태를 통해 표현하는 복식 양식이다.

원시주의를 표현하는 조형적 특성이 복식과 미술에서 매우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공유의 맥락에서 복식이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적 산물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의 모더니즘은 기계 문명의 발달에 의한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으며, 이의 영향으로 복식에서도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기능미를 추구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된 복식이 지배적이었다. 복식의 원시주의는 이와 반대되는 흐름으로 기계주의적 물질문명에 의한 비인간화와 자연환경의 파괴가 지속되는 한,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과 자연에로의 회귀를 표출하고자 하는 원시주의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 ABSTRACT

### Primitivism Expressed in Modern Fashion

Recently in the post-modernism era ethnic look, tropical look or ecological look has prevailed as an important theme of fashion all over the world. The main core of these themes is based on primitiv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 to comprehend the internal meaning and the external form of primitivism in modern fashion, secon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primitivism in art with those in modern fashion as one of the phenomena in cultural consistency.

For this purpose, documentary studies about primitivism in social science and art were preceded as a framework of this study and then objective studies about primitivism in modern fashion and art were analyzed. Primitivism expressed in clothing since the 16th century was also historically trac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Primitivism in modern fashion was summarized by emotionality, play, ecology and aboriginality as well as was represented by external forms of open form, part-to-whole relation, planar intergration, rounded form, and indeterminate form.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external form of primitivism in art and fashion is quite similar and is an example of cultural consistency. So it is reaffirmed that fashion is the production of culture, representing zeitgeist as a genre of art.

2. Modern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brought the richness of material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echanical culture, emphasizing rationality as well as functionalism. Fashion also has been influenced by this modernism, so it has tended to express only the beauty which emphasizes the functional aspects of clothing and excludes the decorative characters. The primitivism in recent fashion is against the flow of modernism. In a word, the pursuit for the regression to nature and the recovering of humanity is the core of the primitivism in modern fashion.